

---

# **보험연구원 종합감사 결과**

---

**2021. 6.**

**금 융 위 원 회  
감사담당관실**

## 1. 감사실시 개요

---

### ☐ 감사배경

- 보험연구원은 금융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정기 **종합감사 시기 도래**(직전 감사 2016.10월 실시)
- 보험연구원의 고유사업, 예산집행·회계처리, 인력·조직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연구기관으로서의 역량 제고를 도모

### ☐ 법적근거

- 민법 제37조\* 및 비영리법인 설립·감독규칙(총리령) 제9조

\*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, 감독한다.

### ☐ 감사기간 : 2021.4.5(월) ~ 4.16(금), 10일(근무일 기준)

### ☐ 감사대상: 고유사업, 예산·회계, 조직·인력, 임직원 복리, 내부통제 등 조직운영 전반

### ☐ 감사요원: 감사담당관 외 5명(외부전문가\* 2명 포함)

\*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회계사,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감사실장

### ☐ 감사중점

- 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
- 연구윤리 규정의 준수 여부
- 인력 및 조직관리 실태
- 예산집행·회계처리, 자금관리, 계약사무의 적정성
- 임직원 보수·복리후생 지원의 적정성
- 신규 직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
- 정관 등 제 규정 준수여부
- 종전 금융위 감사('16년)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

## 2. 감사결과 지적사항

### ① 연구사업 분야

#### □ 연구사업계획 대비 연구과제 변경·폐기 과다

- 보험연구원은 「연구관리규정」 제4조에 따라 내·외부 연구수요조사, 연구실별 회의, 원장·실장 회의를 거쳐 연구사업 목표와 개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음
  - 연구사업계획안은 연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최종 사업계획안에 반영하고, 연구원 「정관」 제40조, 「연구관리규정」 제5조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아 차년도에 연구를 수행함
- 그런데, 2017년~2020년까지 총회 승인 연구과제 85건 중 연구과제명 50건(58.8%), 연구기간 65건(76.5%), 연구진 16건(18.8%)을 변경하였고, 9건은 폐기하여, 총 85건 중 사업계획 원안대로 수행한 과제는 6건에 불과함
- 또한, 연구원은 2019년 과제 중 2건, 2020년 과제 중 2건을 이월하였고, 연구책임자 퇴사, 업무과다, 연구자료 입수 어려움, 연구목적 기달성 등의 사유로 2017년~2020년까지 9건의 연구과제를 폐기하였고, 이 중 1건은 연구시작일로부터 11일 이내, 5건은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폐기하였음
- 「연구관리규정」 제5조 제2항은 연구과제 수행 중 “여건의 변화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과제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신규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” 고 규정하고 있으나
  - 연구과제 변경이 93%에 달하는 것은 연구사업계획이 면밀하지 못하고, 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이 부실하였다고 볼 수 있음

⇒ 보험연구원은 총회에서 승인된 연구과제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사유로 변경·폐기·지연·이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, 정기적으로 연구과제 진척도를 점검·관리할 필요 (권고)

## □ 연구부정행위 방지 조치 미흡

-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하면 연구자 자신은 물론 연구원과 학계, 산업계에도 피해를 주므로 연구원은 연구부정행위\*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
    - \* 연구부정행위란 위·변조, 왜곡, 표절, 중복게재(자기표절), 부당한 저자 표시, 비밀누설 등을 말함
  - 연구윤리의 확립은 연구자 개인의 의식 변화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
  - 보험연구원도 2012.9.20. 「연구윤리기준」을 제정하여 원장에게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(제5조)
    - \* 연구윤리기준 제5조(사전예방 의무) 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 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- 보험연구원은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 등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점검 절차가 없는 상황임
- ⇒ 보험연구원은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 보고서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·시행할 필요 (제도개선)

## ② 인사관리 분야

### □ 채용 지원자와 동일기관 또는 동일부서 근무 심사위원 미제척

- 보험연구원은 2019년 박사급 연구책임자 공개채용시 서류심사 합격자 3명에 대하여 채용세미나 평가를 실시하였는데
    - 채용세미나 평가위원 중 A연구실장은 지원자 B와 ○○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1년이 겹침
  - 또한, 2020년 박사급 연구책임자 공개채용시 보험연구원 내부 지원자였던 C와 1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D연구실장과 E연구실장이 평가위원으로서 서류전형과 채용세미나에 참여함
- ⇒ 보험연구원은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채용 심사위원 제척·기피·회피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(제도개선)

### ③ 예산집행/회계처리 분야

#### □ 당해연도 완료 위탁연구용역 대금 차년도 지급

- 보험연구원은 2018.6.18.~2018.12.17.까지 F대학교 경영대학 금융학부 G교수와 “보험회사 시스템리스크에 관한 연구”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
    - 2018.12.13. 최종보고서 검수를 완료하였으나, 용역 대금(1천만원)은 2019.3.14.에 지급함
  - 당해연도에 완료된 위탁연구용역 대금을 차년도에 지급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고
    -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 결산보고 및 예산안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
- ⇒ 보험연구원은 연구용역 대금 지급이 누락 또는 지연되지 않도록 연구용역 담당 부서와 용역 대금 지급 부서간 업무협조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 (주의)

#### □ 국외출장시 숙박비 초과 지급

- 보험연구원은 「출장여비규정」 별표2에 따라 원장, 부원장을 제외한 직원의 국외여비 중 숙박비를 일당 체재비에 포함하여 지급
    - 이에 따라 출장 중 숙박 일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숙박비를 숙박 일수가 아닌 출장 일수로 지급하여 모든 출장에 숙박비를 초과 지급하고 있음
- ⇒ 보험연구원은 일당체재비를 일비·식비·숙박비로 구분하고, 숙박비가 실제 숙박 일수에 맞게 실비로 지급될 수 있도록 「출장여비규정」을 개정할 필요 (제도개선)

#### □ 항간 분류 오류 및 계정과목 분류 부적정

- 보험연구원은 「회계규정」에 따라 지출금액의 계정과목을 분류하고 있음
  - 「회계규정」의 계정과목 해설을 검토한 결과 일반사업비 내 전산비와 일반관리비 내 행사비의 분류 오류가 있음

**<표> 항간 분류 오류 현황**

구분	현행 항	올바른 항
전산비 (전산기기 임차료, 사용료, 기계부속품 교체비, 천공료기술용역비, 전산업무협약비)	일반사업비	일반관리비
행사비 (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)	일반관리비	일반사업비

- 또한, 일반관리비 항목 내 잡비 계정별 원장 검토 결과 지급수수료, 복리후생비, 홍보비 성격이 잡비로 계상된 오류가 있음

**<표> 계정과목 분류 오류 현황**

구분	현행 계정과목	올바른 계정과목
임원 운전대행 및 청소용역비	일반관리비>잡비	일반관리비>지급수수료
임직원용 다과비		일반관리비>복리후생비
홍보기념품 및 홈페이지 게재 사진		일반사업비>홍보비

⇒ 보험연구원은 항간 분류 오류 및 계정과목 분류 부적정을 시정할 필요 (시정)

#### 4 모범사례

##### □ 연구성과물 공유·확산 방안 개선

- 보험연구원은 연구성과물을 종이책자 배포, 홈페이지 게시, 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공유하였으나, 정보전달방식이 종이책자에서 전자책으로, PC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
  - 이에 연구원은 시각적·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
    - ※ 보험산업 관련 주요 이슈의 핵심내용을 보험종사자와 보험소비자에게 소개
- 또한,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온라인 세미나(온·오프라인 병행 포함)를 개최하여 정부·업계·학계·언론·소비자 등과 연구결과물을 공유